

2022년 상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 '소설가의 방' 사업 선정 심사 총평

- 심사일정 : 2022. 2. 10(목) 14:00-16:00
- 심사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 심사위원 : 김덕희, 윤고은, 정용준 (가나다 순)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생각과 그 생각을 옮길 언어가 있어야 한다. 노트와 노트북, 연필과 키보드도 필요하다. 음, 사실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그 시간을 글쓰기에 녹여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식탁에서도 쓸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쓸 수 있고 집에서 쓸 수 있고 침대에서도 쓸 수 있고 카페에서도 쓸 수 있지만 한번쯤은 오직 '쓰기'만을 위한 공간에서 쓰기에 몰두해보고 싶은 것은 작가들의 로망이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질적인 쓰기의 조건일 것이다. 작가는 쓰는 존재인데 생활과 일상은 작가에게 '쓰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에게 '쓰기를 위한 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거주 경험과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언어와 미래의 책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소설가의 방' 사업에는 총 24명의 작가가 신청했다. 3명의 심사위원은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꼼꼼하게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활동했던 실적과 작품들을 살폈고 앞으로 활동계획과 창작 일정도 체크했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원서에 쓴 작가의 마음과 '소설가의 방'에서의 시간이 실질적인 결과와 작업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다. 심사위원 간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엇갈린 의견도 있었다. 이 논의가 헛되지 않도록 심사위원들은 여러 번 의견을 나누고 적절한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최종 4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에서 6주. 어떤 작가는 소설 한 편을 어떤 작가는 짧은 문장 한 줄을 얻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들은 미래의 이야기와 책이 되어 독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선의의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 호텔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계속 계속 이어져서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심사위원 일동